몽골서 띄우는 어느 시인의 연서

강회진 시인 포토에세이 '몽골이…' 발간
2003년부터 틈틈이 여행 풍광 담아
'아시아문학상' 우리앙카이 추천사

"인생에 가이드북은 없다. 나의 여행에도 가이드북은 없다."

바람과 초원과 사막의 나라로 불리는 몽골. 남한보다 17배나 큰 나라다. 어떤 이에게 몽골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거느렸던 칭기즈칸의 나라로 기억된다. 또 어떤 이에게는 수많은 길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곳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강회진 시인에게 몽골은 "목적지가 없어도 좋고, 길이 없어도 좋은 곳"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시인은 지난 2003년부터 5번째 몽골을 다녀왔다. 몽골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떠나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시인은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는 말로 둘러댔다. 첫 여행은 2003년 여름에 살고 있던 옥탑방 전세금을 빼서 바람처럼 떠났다. 그 전부터 시인은 오랫동안 몽골 풍경사진을 품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월 몽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가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평소의 생각을 또 실현한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포토에세이 '몽골이 내게 준 말들-했으나 하지 않은 말들이 좋았다'(문학들·사진)은 그러한 여정의 산물이다. 지난 2003년부터 몽골을 여행하며 틈틈이 써두었던 글들이 현지의 생생한 사진들과 곁들여져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사실 이번 5번째 여행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앞서의 일정들이 다소 '방황'의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은 뭔가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다. 시인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서 몽골 시인 담딘수레 우리앙카이를 만났다.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우리앙카이는 강 시인이 쓰고 있는 몽골 관련 에세이 추천사를 써주었다.

"몽골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다고 했더니 진심으로 반갑게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직접 추천사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몽골에 다녀온 것은 출간된 책을 우리앙카이 선생님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였어요. 함께 문학을 공부하는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회원들과 동행을 해서인지 여느 때보다 뜻 깊은 여정이었죠."

말을 타고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어느 할아버지와 손자의 뒷모습.

책에는 '울란바타르 13구역, 게스트 인생', '겨울밤, 모린호를 켜다', '붉은 여우', '하늘과 바람과 별과 게르(Ger)' 등 모두 60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지난 2011년 여름과 가을, 겨울을 그곳에서 살며 느꼈던 단상과 풍광 그리고 이전과 이후 방문 때마다 새로운 감흥으로 다가왔던 몽골의 신비와 아름다움, 내밀한 속살이 서정적이며 정갈한 문체로 갈무리돼 있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솔롱거스라고 부릅니다. solongo가 무지개라는 말이니, 솔롱거스는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뜻이지요… 어느 해 여름, 홉스골에서의 일입니다. 게르 문 열어놓고 앉아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여름 게르에 투투둑 떨어지는 빗소리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무지개다!" 소리쳤습니다. 멀리 호수 위로 거짓말처럼 무지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당신은 나의 solongo!(무지개)'중에서)

책은 흔한 몽골 여행에세이나 여행안내서와는 결이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몽골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과 관점, 감수성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눈물도 없이 고통을 견디는 시간을" 보내며 몽골의 견고한 바람과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터다.

우리앙카이의 추천사는 다른 나라에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강 시인의 감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사람이란 원래 남의 나라, 타국인을 자기 자신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강회진 시인은 몽골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몽골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한 숨은 아름다움까지 아주 잘 느끼고 있다. 참 신기한 사람이다."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현지의 풍광을 담은 사진들이다. 바로 눈 앞에서 '풀과 야생화와 춤을 추는 초원'의 이국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또한 밤의 풍경은 "초원 한가운데에 앉아 별과 대지와 다정한 눈맞춤과 입맞춤"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에세이를 읽고 나면 시인은 왜 자꾸 몽골로 떠났고, 다시 또 떠나려 하는지 의문이 간다. 아마도 이 구절 때문은 아니었을까. "자작나무 연서는 천년을 간다"는 시인의 말이 힌트가 될 것도 같다. 시인은 난로 옆에 앉아 자작나무 껍질을 벗긴 후 누군가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다"고 고백한다. 이어 "긴긴 세월, 그대와 이웃해서 살아왔으므로. 내 안에 이미 그대가 살고 있으므로"라고 말한다.

한편 강회진 시인은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와 단국대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4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일요일의 우편배달부', '반하다, 홀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19일부터 모집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2018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국악교실은 국창 임방울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전통국악예술진흥·보급, 문화예향시민의 정서순화, 취미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악교실에서는 다문화반을 운영해 고유의 전통국악을 체험·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분야는 ▲판소리 김찬미(제1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민요 노해현(〃) ▲한국무용 김덕숙(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97호 살풀이 이수자) ▲고법 임영일(〃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다문화반 김연옥 (제25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등 6과목이다.

각 강좌별로 20명 이상 모집하며 수강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진행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강좌는 주 1회 2시간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이다. 문의 062-521-0731~2, 062-670~7989./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 오는 화제작 감독들

8일 '공동정범' 10일 'B급 며느리' 관객과의 대화

광주극장이 '공동정범'의 김일란 감독, 'B급 며느리'의 선호빈 감독 등을 초대해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한다. 또, 러브스토리, 드라마 등 다양한 영화를 선보인다.

영화 '공동정범'은 용산참사의 또다른 아픔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지난 1월25일 개봉한 '공동정범'은 8일 오후 7시 20분 변영주 감독의 진행으로 김일란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변영주 감독은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을 통해 해외 유수 영화제 수상과 함께 한국다큐멘터리 사상 최초로 극장개봉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김일란 감독은 '두 개의 문'으로 다큐멘터리의 흥행 전성시대 포문을 열기도 했다.

영화 'B급 며느리'는 감독 자신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부갈등에 카메라를 깊숙이 들이댄 생활밀착형 다큐멘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B급 며느리'의 선호빈 감독은 광주극장에서 오는 10일 오후 3시 'B급 며느리'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

김일란 감독

선호빈 감독

영화 '오직 사랑뿐'은 오는 8일 개봉한다. 이 영화는 1947년 갖은 위협 속에서도 나라와 사랑을 지킨 보츠와나 공화국 초대 대통령 세레체와 그의 아내이자 아프리카 최초의 백인 퍼스트레이디 루스의 러브스토리이다. 데이빗 오예로워는 강대국의 압박 속 조국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세레체 역을 맡았으며, '나를 찾아줘'의 에이미를 연기한 로자먼드 파이크는 루스를 선보인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가상을 수상한 이완민 감독의 첫 장편작 '누에치던 방'은 9일 개봉한다. 외로운 이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도시 속 사람들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관계에 지친 동시대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위로를 건넨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통문화강좌 '청사초롱' 23일까지 선착순 모집

판소리·다례·채색화 등 12강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2018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일반인 대상의 판소리,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 전통음식, 전통다례, 전통채색화와 청소년 대상의 가야금병창 등 7개 분야 총 12개 강좌다. 강좌마다 15회 운영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강사진은 ▲판소리=이임례(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 판소리강산제), 방성춘(방야순)(〃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판소리고법=감남종(〃 제11호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이영애·황승옥(〃제18호 가야금병창) ▲청소년 가야금병창=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최영자·이애섭·민경숙(〃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전통다례=김영미(한국차문화협회 사범) ▲전통채색화=이성임(회화작가)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 직접 방문, 전화로 가능하다. 상반기 강좌는 3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인 10명 중 4명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 등 독서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 60%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해 성인은 5.4%포인트, 학생은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며 1994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종이책 독서량은 성인 평균 8.3권으로 역시 2015년 조사 때의 9.1권보다 0.8권 줄어들었다. 학생의 독서량 역시 28.6권으로 2년 전 29.8권보다 감소했다. 단, 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의 독서량은 평균 13.8권으로 2015년 조사 때 14권과 비슷해 전체 독서 인구는 줄었지만 독서자의 독서량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은 2011년 74.5%에서 2013년 67.0%, 2015년 64.9%, 2017년 59.6%로 지속해서 감소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도서 구매량은 성인 평균 4.1권, 학생 4.7권이었다. 성인의 경우 1년에 평균 5만5000원을 도서 구입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